

예수가 그리스도

Jesus is the Christ

마태복음 16:13-18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2년 2월 26일 설교

¹³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¹⁴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¹⁵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¹⁶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¹⁷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¹⁸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판을 섬기던 지역

팔레스타인 땅 북쪽 끝에 높은 산이 하나 있는 것 아시지요?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헤르몬산인데, 우리네 백두산보다 조금 높습니다 (2814m). 그 산 남서쪽 기슭에 보면 바위로 된 거대한 언덕이 하나 있고 그 언덕 중간쯤에 사람 키 몇 배는 되는 커다란 동굴이 하나 뚫려 있습니다. 지금도 동굴 안에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만 백오십 년 전 지진이 나기 전까지는 그 동굴 안에 커다란 샘이 있어서 거기서 물이 팔팔 쏟아져 나왔습니다. 헤르몬 산 속에 있던 물이 모이고 모여 그 샘을 통해 쏟아져 나온 모양인데 그 물이 지금은 동굴 바로 옆에서 쏟아져 나와 북 요단강을 이루어 갈릴리 호수까지 흘러갑니다.

옛날에는 이 지역을 파니온이라 불렀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이라는 신을 많이 섬겨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판은 위로는 사람이고 다리는 염소 다리를 한 반인반수로 자연, 전원, 목축, 음악 등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들은 대개 자기 신전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신전에서 신을 섬기곤 했는데 판은 전원의 신답게 신전이 따로 없이 그냥 동굴 같은 곳에서 숭배를 받았습니다. 당시 파니온 사람들도 물이 쏟아져 나오던 그 동굴에 판이 산다고 믿고 해마다 짐승을 잡아 동굴에 던져 넣어 판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 동굴은 지하세계, 곧 저승으로 가는 문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동굴이 물하고 가까이 있으면 무조건 저승의 문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헤라클레스가 저승에 가서 저승을 지키는 개 케르베로스를 잡아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때도 그리스 남쪽 바닷가에 있는 동굴을 통해 저승을 다녀왔다 합니다. 베르길리우스가 쓴 로마 신화에도 보면 아이네이아스라는 영웅이 쿠마의 무녀를 안내자로 삼고 저승을 다녀온 이야기가 있는데 그 때도 무녀의 동굴로 들어가 동굴 끝 아베르노 호수에 있는 입구를 통해 저승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신화에 나오는 신을 열심히 섬기던 마을에 커다란 동굴이 있고 그 동굴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으니 그 동굴은 그 당시 누가 보아도 저승으로 가는 입구였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금으로부터 약 이천년 전 이 파니온은 로마제국의 일부였습니다. 당시 조금 아래 팔레스타인 지역은 헤롯이라는 왕이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 다스리고 있었는데 파니온 지역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자청해 로마에 합병되자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그 지역까지 헤롯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황제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판을 섬기던 그 동굴 앞에 신전을 하나 세우고는 그 신전을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지금은 신전은 없어졌지만 신전의 기초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헤롯은 헤롯대왕이라 불리는데 예수님 당시 서 있던 성전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마사다라는 유명한 요새도 이 헤롯이 만들었고 지중해와 만나는 바닷가에 가이사라라는 도시도 건설했습니다. 당시 올림픽 위원회에 재정 지원도 해 주고 흉년 지역 구제도 하면서 좋은 왕이 되려고 나름 애를 썼습니다. 이 헤롯이 성경에도 나오지요.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고 갓난 아기들을 죽이라 명령한 헤롯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인데 헤롯이 예수님이 나신 그 해에 죽었으니까 아마 명령을 내린 뒤 얼마 안 되어 죽은 모양입니다. 이 헤롯이 죽은 다음에는 로마 황제가 나라를 넷으로 나누고 세 지역을 헤롯의 세 아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주었는데 파니온 지역은 빌립이라는 아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커다란 동굴이 있던 이 파니온 지역에 신도시를 하나 건설하고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기념하는 뜻에서 이름을 황제의 도시, 곧 가이사라라고 지었습니다.

다. 그런데 아버지 헤롯이 바다 쪽에 이전에 건설해 놓은 도시도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가이사랴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 빌립이 새로 지은 이 가이사랴를 빌립의 가이사랴, 곧 가이사랴 빌립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을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지역으로 가신 것은 상당히 의외의 행보였습니다. 이 지역은 우상숭배로 이름난 지역이라 유대인들은 얼씬도 하지 않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가셨다 한 다음 적은 내용을 보면 장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듯한 내용입니다. 거기서 현지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거나 병을 고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제자들하고 대화를 나누신 것뿐입니다. 어디서든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 같은데 이상하게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두 사람 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다 하고 우상숭배로 유명한 그 마을 이름을 굳이 적어 놓았습니다.

물음과 대답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키실 때 늘 이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주님은 지금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이 주님 당신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은 주님 사역 전체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다양했습니다. 세례요한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 하는 사람도 있다 했습니다. 엄청난 평가입니다. 세례요한은 당시 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엘리야나 예레미야 역시 선지자 가운데서도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날의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기분이 어떠셨을까, 보통 사람이라면 흐뭇했겠지요. 사람들이 나를 이 정도로 알아준다는데 기분 안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안 하시고 바로 두 번째 물음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는 인자라 안 하시고 그냥 “나”라 하시는데 그러고 보니 주님의 첫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을 위한 예비 단계였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거긴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래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건 놔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너희도 남들처럼 세례요한 아니면 선지자라 하느냐 아니면 다르게 보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첫 질문에는 제자들이 단체로 대답을 했는데 여긴 제자들이 어쩔다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들이 하는 말을 전하는 거야 쉽지요. 물건을 전하는 건 어렵지만 말을 전하는 건 쉽고도 쉽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물으시니 일단 멈칫하게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왜요? 우선 내 생각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누구시지?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주님과 내가 어떤 사인지 그것부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말로 표현하면 책임도 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니까,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

다들 멈칫하는 사이 베드로가 먼저 나섰습니다. 베드로는 성도 베씨라서 한국 성하고 비슷하고 성질도 한국 사람하고 비슷해서 늘 급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주는” 하는 말은 이인칭 대명사입니다. 영어로 “유”가 되는데 우리말은 이인칭이 “당신” 또는 “너”라는 낮춤말만 있습니다. 높임말도 없거니와 보통의 표현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게 많은데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제가 즐겨 쓰는 “그대”를 사용해 다시 말해보면 “그대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대답이 됩니다.

말만 서두른 게 아니고 깨달음이 이미 앞섰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신약의 그리스말로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말을 구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 합니다.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입니다. 오래 전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여자의 씨라 하셨는데 나중에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라 하셨습니다. 이 메시아가 오시면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고백은 그대가, 지금 나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는 그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그냥 사람이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다 더러운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속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한 다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이라 즐겨 부르셨지만 베드로는 다 알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우리 죄에서 건져주실 진짜 구세주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

베드로 앞에 서 계시는 분은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가지신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 고백은 베드로를 시작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모두가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이렇게 다섯 낱말의 첫 글자를 따 모으면 익두스 곧 그리스말로 물고기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제국 시대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비밀리에 연락할 때 이 물고기 그림을 신호로 사용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셨지요? 바른 고백이 물고기니까 바른 고백을 하는 사람을 자꾸 만들어내면 물고기를 낚는 것과 같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가면 생선 가운데 틸라피아가 많이 잡힌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틸라피어를 베드로 고기라 부른답니다.

이 물고기 한 마리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시라는 걸 믿기만 하면 누구든 구원을 받습니다. 이 물고기 고백은 구원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입니다. 필요조건은 말 그대로 꼭 필요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예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습니다 (행 4:12). 주님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예수, 이 이름이 아니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라야 됩니다.

물고기 고백은 구원의 충분조건입니다. 이것 하나만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기에 넉넉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하나면 됩니다. 다른 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이름도 필요가 없고, 다른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도 믿고 선행도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예수도 믿고 도도 닦아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천 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오신 예수 그 분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하고도 완전한 구주시라는 것을 믿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른 것 아무리 거창하게 많이 갖다 붙여도 이것 없으면 엉터리입니다. 예수 하나면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 한자로 기독교인, 영어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우상의 땅에서

베드로가 한 대답을 보니 주님이 왜 그리 가셨는지, 왜 다른 곳도 아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질문을 하셨는지 짐작이 갑니다. 우상숭배의 본산입니다. 판이라는 우상을 섬기던 지역입니다. 판이 신입니까? 전원, 목축을 관장하는 신입니까? 이 판이 동굴에 산다고 믿고 거기 짐승을 던져 넣었습니다만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판은 시링크스라는 예쁜 요정을 보고 겁탈을 하려고 했습니다. 시링크스가 강가로 도망을 가 강의 요정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강의 요정들이 시링크스를 갈대로 변하게 했습니다. 판이 강가에 무성한 갈대 가운데 어느 게 시링크스인지 알 수가 없어 그냥 갈대를 한 줌 꺾어 그걸 엮어서 악기를 만들었는데 그게 팬파이프 또는 팬플루트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판을 신이라고 섬겼습니다.

판을 섬기던 동굴 앞에는 헤롯이 세운 신전이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걸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지만 세월이 좀 흐른 뒤에는 그 자리에 제우스 신전도 서고 바위 언덕에는 에코, 헤르메스 등 다른 우상을 새겨 넣어 그 바위 언덕이 올림포스 산처럼 우상 집합소가 됩니다. 바로 그 우상의 자리에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베드로의 분명한 믿음을 확인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해 주님이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복 받았구나!” 하시고는 곧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 곧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 반석이 곧 베드로입니다. 주님이 지금 동굴이 있는 그 바위 앞까지 오셨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 바위언덕은 그 지역에서는 다 알고 있던 언덕입니다. 그 앞에는 지금 헤롯이 세운 신전 건물이 서 있습니다. 주님은 거기서 그 바위 언덕이 아닌 베드로, “이 반석” 위에, 신전이 아닌 교회를 세우겠다 하십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구주시라는 고백을 받으시고 우상숭배의 자리인 바위 곁에서 그 바위가 아닌 이 바위, 곧 베드로 위에, 바른 신앙고백의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교회가 됩니까? 믿는 사람의 무리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으니 베드로처럼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베드로가 낚시를 잘 해서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저승의 문

주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하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말의 원문은 “하데스의 문”입니다. 하데스가 뭔지 아시지요? 하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저승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하데스의 문은 저승의 문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면 저승의 문 곧 죽음이 감히 놀러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얻을 영생의 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하리니” (요 11:25-26).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원히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안 죽을 것이다, 아니면, 죽음이 감히 넘보지 못할 것이다, 하셔도 될 것을 굳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저승의 문”이라 하신 것은 주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사람들이 저승의 문이라 부르던 그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신을 열심히 섬기던 동네 한가운데 저승으로 가는 문이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리 섬겨도, 그 동굴에 아무리 많은 짐승을 잡아 바친다 해도, 사람의 가장 근본 문제인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죽음이 뭘니까? 죄가 가져다 준 형벌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죽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상을 섬기는 동네 한가운데는 죽음으로 가는 동굴이 있어도 조금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리, 죽음으로 가는 입구가 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가 세상 우상과 무엇이 다른지, 그 구세주를 믿은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받을 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의 파니온

그곳 이름이 파니온이라 했지요? 파니온이 어디입니까? 세상이 파니온입니다. 세상은 어제든 오늘도 갖가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전에는 목축의 신 판을 섬기고 판의 아버지 헤르메스랑 신의 우두머리인 제우스를 섬겼다면 지금은 제 탐욕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갖고 싶은 욕심, 누리고 싶은 욕심, 자랑하고 싶은 욕심, 즐기고 싶은 욕심, 이런 욕심을 신처럼 떠받들고 그 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며 살아갑니다. 땅 더 췌다고 아우구스투스에게 신전을 지어 아첨한 헤롯처럼 이 모든 욕심의 핵심은 나 중심 사상, 곧 이기주의입니다. 나를 섬기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한가운데 커다란 동굴이 있습니다. 저승 문입니다.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 동굴 아래 물이 고여 있지 않아도 지금은 그게 저승의 문이 되었습니다. 병이나 사고를 저승의 문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에게 짐승을 던져주던 그 동굴이 바로 저승 입구였습니다. 오늘도 내 욕심의 동굴, 내 자랑의 동굴, 내가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가 바로 저승의 문입니다. 저승의 문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이 곧 저승의 문입니다. 그러니 안 죽는 사람이 없지요. 다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요 저승의 문이 있는 곳임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그 물고기 믿음을 우리도 가졌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에 우리도 속했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저승의 문이 감히 넘볼 수 없다는 사실도 주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거대한 우상의 바위 언덕 앞에서 살면서도 예수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가고 주님이 보여주신 영광을 부활을 우리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물고기 한 마리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언제나 핵심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 고백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 번 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면서 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이웃하고도 두루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수경 목사)